

위스키 17년, 21년, 30년산...어떻게 매기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조니워커 블루는 몇년산일까? 정답은 21년산.

흔히 발렌타인·시바스리갈 등 곡물로 빚은 위스키는 숫자로 숙성기간을 표기한다. 그러나 조니워커 시리즈는 레드(6~8년산), 스웬(15년산), 블루(21년산)만 라벨색깔로 표기하고 블랙(12년산), 골드(18년산)는 색깔과 숫자를 병기한다.

그렇다면 발렌타인의 라벨에 붙어있는 17, 21, 30은 무엇을 뜻하는가?

원액의 숙성기간을 말한다. 위스키 제조사들은 위스키 원액저장소에서 연산별·종류별 원액을 사들여 30~100종을 블렌딩(술을 섞어 고유한 맛을 내는 방법)한 뒤 병에 넣어 판매한다. 이때 연산은 블렌딩에 사용된 원액 가운데 숙성기간이 가장 짧은 원액의 연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17년산은 17년된 원액과 18, 19, 20년 등 수십종의 원액을 섞었을 경우 숙성기간이 가장 짧은 원액인 17년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21년산, 30년산의 경우도 숙성기간이 가장 짧은 21년, 30년 원액이 첨가됐다는 것이다.

오크통 속의 원액은 시간이 흐르면서 참나무의



오크통 속 원액 숙성 기간 따라



호흡기능과 적당한 온도 등에 힘입어 불순물이 제거되고, 맛과 향이 우리나라에 된다. 또 70도 이상의 알코올 도수가 60도 전후로 부드러워진다.

특히 원액은 오크통 속에서 매년마다 3%씩 증발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고 그 값도 천정부지로 오른다.

50년산, 100년산 위스키를 시중에서 볼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원액 때문이다. 위스키 제조사들이 비싼 원액을 구입해 위스키를 제조할 경우 과연 수요가 있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중에 나온 위스키 가운데 왜 6, 8, 24년산 따위는 구경하기 힘들까? 원액을 오크통에

서 숙성할 때 12, 17, 21, 30년산 주기로 맛과 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들 숙성연도가 보편화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물론 틈새시장을 노리고 내놓은 15년산의 발렌타인 마스터즈나 J&B리저브 등도 있기는 하다.

위스키 나이는 곡물로 만든 증류주 원액을 오크통에 넣을 때부터 계산한다. 곧 일정한 온도와 조건을 갖춘 오크통 속에서 원액이 얼마나 오래 숙성되느냐에 따라 그 나이가 정해진다.

상온에서, 그것도 병속에 보관했다는 것은 숙성의 의미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조니워커 블루(21년산)를 구입해서 10년 동안 보관했다 할지라도 31년산이 아니라는 말이다.

포도주는 수확한 포도를 기계로 으갠 뒤 양질의 효모를 첨가, 오크통에서 1~2년 발효시킨다. 장기간 발효시킬 경우 변질의 위험이 있어 오크통에서 꺼내 다시 병에 넣어 저장한다. 최대 저장기간은 70년이다. 포도주인 나폴레옹은 1990년산은 무슨 뜻일까. 올해를 2007년이라고 할 경우 17년 묵었다는 것이 아니라, 1990년에 제조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은?

1787년산 '클라레레'

제퍼슨 미 대통령 사인 1억8900만원
국내선 1500만원 '루이13세 블랙 팰'

술의 기원에 대해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아주 오랜 전에 과일·곡식이 땅에 떨어져 낙엽이 쌓이고 공기가 차가되면서 자연적으로 발효된 액체가 술의 출발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추측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인류 최초의 알코올성 음료는 벌꿀술이라는 주장도 있다. 어원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벌꿀술을 지칭하는 '미드(mead)'는 음주나 명정(酩酊·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함을 뜻한다.

역사적 기록을 가진 최초의 알코올성 음료는 맥주다. 옛 바빌로니아 지방에서 출토된 토제 분판(粉板)을 보면 그들도 이미 맥주를 즐겼음을 미뤄보아 맥주의 역사는 B.C. 4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은 무엇일까? 기네스에 따르면 스프링뱅크 1919멜트위스키로, 영국 런던의 포트는 앤 메이슨에서 한병에 1만800달러(1천200만원)에 팔린 것으로 전한다.

일반 제품이 아니라 특정 인물과 관련된 가장 비싼 술로는 1787년 샤프 라피트에서 만든 클라레레라는 술이라고 기네스에 적혀 있다. 맛도 맛있지만 미국 제퍼슨 대통령의 사인이 들었었다는 이유였는데, 이 술은 1985년 무려 15만7천500달러(1억8천900만원)에 팔렸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이라는 별명이 붙은 코냑 '루이 13세 블랙 팰'이 서울 한 백화점에 진열돼 눈길을 끌었다. 한병에 1천500만원이라는 값이 매겨져 입을 딱 벌리게 했다. '레미마르탱'사에서 제조한 이 술은 100년의 숙성과정을 거쳐 탄생했으며, 생전에 코냑을 사랑한 프랑수아 루이 13세의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이종태기자 jtee@kwangju.co.kr

곡물 증류 Whisky 와인 증류 Brandy

양주, 알고 마시면 더 즐겁다

오랜 옛날 자연의 힘을 빌려 술을 만들던 방식은 어느 순간 커다란 변화를 맞는다. 인류는 증류라는 방법으로 알코올 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기술은 근대 화학의 기초를 확립한 아라비아의 연금술사가 개발했다. 이후 동양에서는 곡류를 증류해 소주·고량주 등 독특한 술이 나왔고, 서양에서는 와인을 증류해 브랜디를, 맥주를 증류해 위스키와 진을 만들었다.

'장(醬)과 술은 오래될수록 좋다'는 통설이 있다. 특히 양주라고 불리는 위스키나 코냑은 말할 것도 없고, 알코올 농도가 낮은 와인까지도 오래된 것을 최고로 친다. 오래돼 좋은 술은 증류주 즉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술이다.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러도 부패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숙성된 것이라면 그 기간이 짧더라도 향과 맛을 충분히 느낄 수 있어 구태여 오래된 양주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위스키(Whisky)=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마시는 수입양주가 바로 위스키다. '생명의 물'이라는 어원을 지닌 위스키는 곡물에 효모를 넣어 발효시켜 이를 증류한 뒤 나무통에 넣어 오랫동안 숙성시킨 술을 말한다.

위스키 가운데는 올해로 51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카치위스키, 곧 스코틀랜드 위스키를 첫손가락에 꼽는다. 스카치위스키의 유명메이커로는 우리 귀에도 익은 발렌타인(조지 발렌타인의 식료품점에서 유래), 시바스리갈(시바스 가문의 왕), 커티삭(짧은 셔츠), 글렌피딕(사슴이 있는 계곡), 조니워커(존 워커의 술) 등이 있다.

▲브랜디(Brandy)=포도·사과·체리 등 과일의 발효액을 증류시킨 술을 말한다. 포도가 많이 나는 프랑스 코냑(Cognac) 지방에서 나는 코냑도 브랜디의 일종이다.

나폴레옹 코냑은 나폴레옹이 사기진작을 이나 방한용으로 병사들에게 자주 보급했는데, 그가 왕이 되자 코냑 제조사에서 '나폴레옹 코냑'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코냑의 대명사가 됐다.

▲진(Gin)=위스키나 브랜디와 같은 증류주이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이들과는 달리 발명가가 확실하고 숙성이 필요없는 인공적인 술이다. 진은 17세기 중엽 네덜란드 의사인 뉘보아가 쥘리퍼베리에서 이노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증류한 것이 기원이며, 처음에는 약용으로 사용되다가 산뜻한 냄새가 예주를 자극해 술로 더 널리 애용되기 시작했다.

▲보드카(Vodka)=대맥·소맥·호밀 등 곡물을 증류한 러시아 대표적인 술로, 위스키와 같은 '생명의 물'이라는 어원을 지닌다. 무색투명하고 냄새도 없는 순수한 알코올에 가까운 맛을 지녀 칵테일 베이스로 애용된다. 보드카와 오렌지주스를 섞어 만든 스크루 드라이버가 있는데, 그 기원이 우리나라는 소문도 있다.

▲럼(Rum)=17세기 초 카리브 해역의 영국 식민지인 발마도스 섬에 이주해온 영국

인들이 그 시조이지만, 카리브 연안은 해적들이 많이 활동하던 곳여서 '해적의 술'로 알려져 있다. 카리브해 원주민들이 술에 취해 흥분(Rumbullion)했어서, 사탕수수라틴어인 사카렐에서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테킬라(Tequila)=우리나라처럼 IMF 외환위기를 겪은 멕시코는 최근 테킬라 수출에 주력, 짙짙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

용살란의 일종인 마게이 즐기에서 풀개를 추출, 증류한 메즈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소주처럼 멕시코 서민들은 이 메즈칼을 즐겨 마신다. 테킬라는 메즈칼 가운데 최고로 친다.



레미 마르탱



까위



스카치 블루



역학(사주)수강생모집

- ▶ 1년 이내에 완전초보자를 命중의 용신·희신등을 정확하게 찾아서, 대운과 세운을 대입시켜 그 변화에 따른 당면한 길·흉·화·복과 질병의 원인 및 예후를 판단할수 있도록 교육시켜 개업까지 책임 지도합니다.
- ▶ 한문은 전혀 몰라도 관계없으며 완전 초보자일수록 더욱 배울수 있다.
- ▶ 시간은 돈이다

자정명리학
풍수지리학
전통한의학
박암 연구원 ☎062-262-5113



호남 동원관광에서 15분거리
월남 자연속에
달맛이 불한증막 탄생!!

Open 2007년 5월 예정
상가 임대주를 모집합니다!!
1층 매점, 식당
2층 경락 미사지
임대 문의 062-225-1144
017-250-2288

아직도 염색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삼푸하트 5분이면 염색 끝!! 혼자서 염색하세요!!

알모나이가 들어있지 않아 역한 냄새도
삼푸타입 초간편 염모제 **ODI-CODI**

천연 뽕나무 추출물 80% 이상 함유한 자연칼라 염색제의 새로운 혁명!!
염색 후에도 모발탄력과 윤기가 난다



오디코디의 특별한 염색
독하고 역겨운 냄새 NO! 모발 손상 NO!
피부, 양구, 저저국 천연성분 YES!
코팅, 트리트먼트 YES!

대리점 모집
광주전지역/목포, 순천, 여수, 나주 등 전지역

무점포 사업자 모집
주부 부업으로 최상의 아이템
• 출근하지 않고 재택 근무 가능
• 대리, 화장품 판매 전문가 모집(고수익 가능)
소비가자 : ₩15,000(택배가함)
계좌번호 : 013-107-306199

(주)경명내추럴 호남총판
T.383-0653, H.011-026-1141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동 1316-32호) www.kbododi.co.kr

새로운 품격의 프리미엄이 선보입니다

광신 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현장
재래지(호신, 승정리, 경포리) 클로터어

도산동

49 | 36 | 32 평형
159세대 (준공예정일 2007년 6월 30일)

샘플하우스
OPEN 5월16일

분양문의 **945-8600**
광신가족 : (주)광신종합건설 · (주)광신주택 · (주)광신전입

박찬환 팬사인회 ▶ 일시 : 5월16일 오후2시 장소 : 샘플하우스